

군산시 초등학교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현황과 실태*

Current Status and Actual Conditions of Elementary School Music Rooms and Music Teachers in Gunsan City

유 소 연**

So Yeon Yu

초록 본 연구는 군산시의 초등학교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 실태를 파악하고 음악교육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군산시 초등학교 58개의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 실태를 파악하였으며 근무경력 5년 이상 그리고 2개이상 초등학교에서 근무한 초등교사 5인을 대상으로 하여 심층 면담하였다. 그 결과 군산시는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 보유율이 절반도 되지 않으며 서울지역에 비해 음악 환경적 요소가 미흡하게 갖춰져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음악실 구비, 음악 전담교사 의무 배정, 실제적 교사대상 음악 연수, 음악 교과에 위상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음악실, 음악전담교사, 음악교육환경, 초등음악교육, 교육환경

Abstract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actual conditions of elementary school music rooms and music teachers in Gunsan City and to raise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music education environment. For this reason, we grasped the actual situation of 58 elementary schools and music teachers in Gunsan City, and had an in-depth interview with five elementary school teachers who worked at two or more schools with a career of five years or more. Gunsan City had less than half the ownership rate of music rooms and music teachers and had insufficient music environmental factors compared to Seoul. Based on these results, the provision of an elementary school music room, assignment of a dedicated music teacher, practical music training for teachers, and raising awareness of the status of music subject should be implemented.

Key words: music room, music teacher, music activity facility, elementary music education

* Summary of Master's Thesis of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Corresponding author, E-mail: gpdj92@naver.com

Teacher, Gunsan Wolmyeong Elementary School, 24, Songdong-ro, Gunsan-si, Jeollabuk-do, Korea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의 주체(학생), 교육의 객체(교사), 그리고 주체와 객체를 이어주기 위한 매개체(환경)가 필요하다. 세 가지 요소 모두 중요하지만,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적절한 교수·학습 환경 조성이 학생의 학교 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며(Park, 2009b; Ahn, 2009) 학생의 음악 능력은 음악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Cho, 2007). 하지만 현재 초등 음악교육에 있어 교육환경이라는 기본요소가 제대로 충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양질의 음악교육이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초등 음악교육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교육환경은 학습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외적 조건을 의미한다. 교육환경은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눌 수 있으며 물리적 환경 및 인적 환경을 포함한다. 물리적 환경은 수업이 이루어지는 공간과 관련된 요소이며 인적 환경은 교사를 의미한다. 즉 음악교육에서 물리적 환경이란 음악실을 의미하며 인적 환경이란 음악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라고 할 수 있다.

음악교육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에 해당하는 음악실은 우리나라의 많은 초등학교에 배치되어있지 않은데 그 이유는 학교 특별실이 매년 학생 수 및 학급수에 따라 달라지고 음악실을 필수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타 교과 특별실과 비교하면 음악실에 대한 필요성이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곤 한다. 정다운(Jung, 2011)에 의하면 현장에서 음악실 및 악기의 부재 등 교육환경으로 인한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고 이야기하며 문경숙(Moon, 2009)은 물리적 환경 측면에서 음악시설 및 장비가 미흡하고 활용도가 낮다고 한다. 이는 음악교육환경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음악실에 관한 선행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타 교과의 특별실에 관한 연구들도 특별실의 교육적 의의에 관한 연구보다는 시설 설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인적 환경에 해당하는 교사는 교육의 3요소 중 한 축을 담당할 만큼 중요한 존재이다. 현재 초등학교는 담임 교사 및 전담교사가 수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있다. 학교별 전담교사 수는 학급수에 따라 달라지며 학교 실정에 맞추어 자체적으로 어떤 과목을 전담교사가 운영할지 정할 수 있다. 각 과목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전담교사로 배치되어야 하나 임신이나 출산 등 휴직 계획이 있는 사람 혹은 정년퇴직을 앞둔 교사를 우선으로 전담에 배치하는 경우가 많다(Kwon & Kim, 2017). 이렇게 운영이 되다

보면 학교에 음악전담 교사가 한 명도 배치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성기훈 외(Sung et al., 2002)에 의하면 교과 전담교사는 교사들의 수업 경감 및 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며 많은 현장 교사들 또한 교과 전담교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갖춘 교사가 있어도 교육 시설이 갖추어지지 못한다면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는 힘들며, 반대로 좋은 시설이 구비되었다고 하여도 교육을 제공하는 교사의 능력이 부족하면 양질의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뗄 수 없는 유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음악실과 함께 음악전담 교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이렇듯 음악교육 환경에 따라 초등학교 음악수업의 질이 달라지나 교원 수급 및 특별실 배치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음악실 및 음악전담 교사가 어떻게 배치되어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군산시의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실태를 조사해보고 음악 환경 중요성의 인식을 제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군산시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군산시 소재 58개의 초등학교 대상으로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의 현황을 조사하였다. 각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교 현황 및 교직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하였으며 홈페이지 자료가 미흡한 학교의 경우 직접 전화 조사 및 현장방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2020.2.4.~2020.2.7.)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현황은 KSDC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을 진행하여 분석하였다.

실태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만으로는 연구 문제 해결에 미흡한 면이 있다고 판단하여 면담조사를 시행하였다. 면담 대상은 군산시 재직 중인 초등교사 5인을 대상으로 하며 심층 면담을 통해 음악교육 환경에 대해 질적인 접근을 하였다. 5명의 연구대상 중 음악실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B, E 교사였으며 나머지 A, C, D 교사는 간접적 사용 경험이 있었다. 또한, 5명의 연구대상 중 2명은 음악 전담교사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나머지 3명은 간접적인 경험만 있었다. 간접적 경험이란 교사가 직접 음악실을 이용하진 않았지만 반 학생들이 전담교사와 함께 음악실을 이용하거나 혹은 음악실은 아니지만 독립된 공간에서 음악수업을 하거나, 반 학생들이 음악 전담교사 수업을 받았거나 국악 강사 등 음악 전문 강사와 함께 수업을 진행한 경우를 의미한다.

심층 면담 자료는 반복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해 분석하

였다. 분석을 위해 면담 녹음 파일을 전사 하였고, 전사한 자료는 개방 코딩을 통해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고 분석하였으며 녹취자료를 반복적으로 들어봄으로써 연구 참여자의 비언어적 행동까지 포함하여 자료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코딩된 자료는 범주화 작업을 거쳐 비슷한 주제로 분류하면서 상위 범주를 구성하였으며 범주화 작업 전 자료와 비교를 통해 수정과정을 거쳐 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 현황은 2019학년도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의 유·무만 조사한 뿐 음악실의 상태 및 음악전담교사의 전문성은 고려하지 않았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교육환경

1) 음악실

학교는 제도적인 범주에 따라 의도적 계획적으로 형성되었으며 다른 환경에 비교해 의도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학교환경의 교육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이 학생의 학교생활 및 학업 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 되었으며(Cash, 2009; Earthman, 1995; Ahn, 2009; Choi, 2016) 이는 음악교육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민경훈(Min, 2016)은 학교 음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음악실과 같은 음악 체험 공간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말하였으며 음악과 교육과정에서도 음악 학습 환경에 관한 사항을 찾을 수 있다.

음악과에서는 교수·학습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모든 영역의 학습활동에서 다양한 악곡을 활용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최적의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과 수준, 흥미도, 현실성,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교수·학습 방향 항목에서는 교수·학습 계획, 학교급별 지도,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의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3) 교수·학습 시설 및 기자재

교수·학습의 효율화를 위하여 되도록 음악 활동의 각 영역에 적합한 시설과 교

구, 교재를 구비하여 활용한다.

(가) 방음 시설을 한 음악실과 음악 준비실을 갖추도록 한다.

(나) 리듬 악기, 가락 악기, 건반 악기, 전자 악기 등 다양한 악기를 구비 하여 활용한다.

(다) 멀티미디어 기기를 포함한 다양하고 질 높은 음향 시설을 구비 하여 활용한다.

(자료: 교육부고시. 제2015-74호)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서 음악 학습활동을 위한 음악실 및 기자재 등 음악 학습 환경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시행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교과교실제를 도입했다. 교과교실제의 도입으로 인해 교과목의 특성에 맞는 교과 교실의 구축이 필요해졌고 이를 실행하기 위하여 교과교실제 지원학교를 선정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연수를 시행하는 등 교과 교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교과교실제 컨설팅 가이드 자료에 의하면 실험, 실습, 실기 교과 교실은 최소 1.5칸 이상의 교과 교실을 확보하고 0.5칸의 준비실을 마련하도록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교과교실제는 중, 고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초등의 경우 음악실에 대한 특별한 규정사항은 없다.

조진일 외(Cho et al., 2011)의 학교 시설기준 개정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초등의 경우 교과 중 예체능 과목은 중등과 같이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것이 학습자의 소질 계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한다. 중등학교와의 연계 및 학습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초등에서도 교과 교실운영이 필요하며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한 교과 교실이 구축되어야 한다.

음악 교과 실은 음악 과목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음악 과목은 크게 표현, 감상, 생활화 영역을 학습하며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음악의 구성 및 표현 방법을 알고 기초 연주 기능을 익혀 창의적인 표현을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위한 적절한 공간이 준비되어야 한다. 음악 감상과 이론 수업을 위한 시청각 설비가 두루 갖추어진 공간이어야 하며 방음 시설을 갖춘 시설이 적합하다. 다양한 악기를 수납하는 공간이 필요하며 연주 및 합창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창 및 창작 활동을 위해 개인이 연습할 수 있는 연습공간의 마련이 필요하다. 국악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전통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연주공간의 확보도 필요하다. 또한, 음악수업으로 인한 소음이 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공간을 배치해야 한다(Park, 2009a). 최은식 외(Choi & Kim, 2012)는 음악실 공간을 계획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서 공간 활용의 근접성, 이동 거리 최적화, 교사 감독의 효율

성, 소리전달 최소화, 복합활동 지향성 및 확장성, 공간면적과 음향적 측면을 말하였다.

학교의 크기에 따라 필요한 음악 교과 실의 수는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은 산정 공식을 이용해 소요 학급을 계산한다(Cho et al., 2011).

$$\text{소요 학급수} = \frac{\text{주당수업시수}(A) \times \text{학급수}(B)}{\text{주당수업가중시간}(C) \times \text{이용률}(D)}$$

학교시설 계획 설계 지침 및 시설기준 개발 연구(Lee, 2013)에 따르면 초등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2시간 일 때 24학급, 30학급 시설기준 필요 음악 교실 수는 1개 36학급, 42학급 수업시수에 필요한 음악 교실의 수는 2개라고 제안하고 있다.

2) 음악전담교사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이 교사는 양질의 교육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환경적 요소 중 하나이다. 이 말에 따르자면 음악교육의 질 또한 음악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할 것이다. 음악 교사는 학생들의 음악성 함양 및 음악적 태도를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음악 교사는 학생의 음악적 발달 및 개발에 학교 교육 시기뿐 아니라 평생에 걸쳐 영향을 끼친다는 임은정(Lim, 2015)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다. 석문주(Seog, 2016)는 음악 교사는 음악 교과를 가르치기 위한 교과 지식, 교사가 교육 현장에서 형성하는 실천적 지식, 자신의 수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반성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초등 음악 교사 자격 기준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초등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라면 모두 음악을 가르칠 수 있다. 따라서 음악 교사 자격 기준을 살펴보려면 2008년도에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발표한 음악 교사 중등 음악 교사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에 음악전담 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992년 교육법 시행의 개선으로 교사의 근무 부담 완화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초등학교에 교과전담 교사를 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초·중등 교육법에 제33조 조항을 보면 ‘초등학교에는 각 학급 담당 교사 외에 체육·음악·미술·영어 기타 교과의 전담을 위하여 교과전담교사를 둘 수 있으며, 그 산정기준은 학교별로 3학년 이상 3학급마다 0.75인으로 하되, 학교별 배치기준은 관할청이 정한다.’라는 항목이 있었으나 이는 2013. 2. 15, 일부개정법을 통해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교과전담 교사에 대한 배치기준은 각 시도 교육청에서 정하여 운영하게 되어있다.

각 지자체의 교과 전담제 운영 계획의 경우 교과전담 교과는 실기 비중이 높은 교과

인 체육, 영어, 과학, 음악, 미술, 실과교과 중에서 학교의 형편에 따라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과목별로 교과전담의 정원 및 배정에 대한 기준은 없다. 또한, 각 학교에서는 교과전담 교사제가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교과의 전문성과 수업 실기 능력을 고려하여 교과전담 교사를 배정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지정하는 등 이와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Sung, 2002; Kwon & Kim, 2017).

음악 교과의 경우 현장 교사들이 음악 교과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실기 능력 부족으로 인해 수업에 느끼는 부담감이 크다(Moon, 2009; Kwon & Kim, 2017).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라는 교과 전담교사제 시행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음악 전담교사는 초등 음악교육 현장에 매우 필요한 존재나 음악 전담교사 정원 및 배치에 관한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

III. 연구 분석 및 결과

1. 군산시의 초등학교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실태

현재 초등학교 음악실 현황은 교육 통계서비스로 제공하지 않으며 음악 전담교사 현황만 제공된다. 교수·학습 공간을 일반 교실, 교과 교실, 특별교실, 수준별 교실, 기타교실로 나누어 제시하고 통계를 낸 자료는 있지만, 음악실의 개수는 파악되어 있지 않았다. 음악 전담교사 현황의 경우 도별 통계 자료는 제공하나 군산시만의 자료는 파악할 수 없어 교육청에 문의한 결과 학교마다 상황이 천차만별이며 매해 유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따라서 각 학교 홈페이지에 제시된 학교 현황 및 교직원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홈페이지에 정보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직접 학교에 전화 조사 및 방문조사를 시행했다. 다음은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현황을 분석한 자료이다.

<Table 1> Cross-analysis of music room and music teachers

			Music teacher		
			None	Presence	Total
Music room	None	N	32	5	37
		Row percentage	86.49%	13.51%	100.00%
		Total percentage	55.17%	8.62%	63.79%
	Presence	N	15	6	21
		Row percentage	71.43%	28.57%	100.00%
		Row percentage	25.86%	10.34%	36.21%
	Total	N	47	11	58
		Row percentage	81.03%	18.97%	100.00%
		Row percentage	81.03%	18.97%	100.00%

군산시의 초등학교는 분교 포함 총 58개교가 존재하며 58개교 중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21개 교, 음악실이 없는 학교는 37개교이다. 음악 전담교사가 존재하는 학교는 11개, 음악 전담교사라 없는 학교는 47개교로 음악실은 군산시 학교 중 36.21%, 음악 전담교사는 18.97%만이 존재한다.

이 중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가 모두 있는 학교는 6개교,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가 모두 없는 학교는 32개교이다. 음악실이 없는 학교는 37개로 전체의 63.79%이며 음악 전담교사가 없는 학교는 47개로 전체의 81.03%이다. 또한,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가 모두 있는 학교는 전체 중 10.34%에 불과하여 이를 토대로 군산시 초등학교 음악 환경 구축이 미흡함을 알 수 있다.

음악교육 환경의 실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지역과 비교하여 군산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 특성 및 음악 환경을 알아보자 하였다. 서울지역과 비교한 이유는 서울은 행정구역이 구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구 지역은 적정학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군에 속해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개발원 국가교육통계연구본부(국가교육통계센터) 교육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2> Overview of elementary school in Seoul and Gusan

	Number of school	Number of class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class per school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Seoul	607	18,690	422,293	30.790	22.594
Gunsan	58	746	15,877	12.862	21.282

한 학급당 학생 수는 서울 22.594명, 군산 21.282명으로 서울시가 1.312명 많아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한 학교당 학급수는 서울시 30.790개, 군산 12.862개로 서울시가 17.928개 많다. 이는 서울시에 비교해 군산시의 초등학교가 규모가 작은 학교가 많음을 시사한다. 군산시의 58개 학교 중에서 시 지역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32개이며 그 외 읍, 면, 특수지역의 학교가 26개교인데 실제로 군산시 초등학교의 학급수를 조사한 결과 학급당 학생 수가 군산시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인 21.282명 이하인 학교는 41개교이며 21.282명 이상인 학교는 17개교였다. 이를 통해 학생이 도심지에 몰려 편차가 크고 군산시에 소규모 학급 학교가 많아 음악교육 환경이 불균형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대상을 유형화하여 음악교육 환경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전국에 분포한 초등학교를 시, 읍·면·특수지역, 구로 나눴다. 위와 같이 구분한 이유는 데이터를 행정구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같은 행정구도 지역 규모에 따라 세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군 지역의 경우 지역 규모 분포가 모두 읍·면·특수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시 지역 또한 시 지역 외 읍·면·특수지역이 포함돼있었다. 광역시도 구분만 아니라 읍·면 지역이 있어 같은 행정구에 속해있더라도 지역 규모에 따라 데이터 분포에 격차가 생겼기 때문에 행정구보다 더 작은 단위인 지역 규모별로 구분했다. 총 학교 수에는 분교까지 포함하였으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시, 구, 읍·면 특수지역의 개황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3>와 같으며 지역과 구 지역의 차이를 더 알아보기 위해 조사한 학급수별 학교 분포도 및 백분율은 <Table 4>와 같다.

<Table 3> Overview of elementary schools in city, gu(district), eup(town), myeon(township), and special areas

Division	Number of school	Number of class	Number of students	Number of class per school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City	1904	48613	1203920	25.53	24.77
Gu(district)	1710	46,948	1494365	27.45	22.59
Eup(town), Myeon(township), and special areas	2681	28200	482561	10.52	17.11

시 지역의 학교당 학급수는 25.53개, 학급당 학생 수는 24.77명, 구 지역의 학교당 학급수는 27.45개, 학급당 학생 수는 22.59명, 읍·면·특수지역의 학교당 학급수는 10.52개, 학급당 학생 수는 17.11명의 결과가 나왔다. 시 지역과 구 지역의 데이터는 대체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읍·면·특수지역은 나머지 두 지역에 비교해 총 학교 수가 가장 많지만, 학급수, 학생 수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School distribution and percentage by class

Number of class	City	Percentage	Gu(distric)	Percentage	Eup, Myeon, special area	Percentage
0~10	208	10.92%	112	6.55%	2027	75.61%
11~20	528	27.73%	419	24.50%	303	11.30%
21~30	559	29.36%	538	31.46%	159	5.93%
31~40	365	19.17%	390	22.81%	113	4.21%
41~50	182	9.56%	185	10.82%	52	1.94%
51~60	51	2.68%	59	3.45%	23	0.86%
61~70	11	0.58%	6	0.35%	4	0.15%
71~80	0	0	1	0.06%	0	0
Total	1904		1710	100.00%	2681	100.00%

학급 수별 학교 분포도를 해석해 보아도 시 지역 및 구 지역은 구 지역에 규모가 큰 학교가 조금 더 많다는 정도지만 여기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읍·면·특수지역에 학급수가 10개 이하인 학교가 전체의 75.61%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학급수를 기준으로 하여 전국 초등학교를 시·구 급 초등학교와 읍·면·특수지역 급 초등학교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교육부에서 배포한 적정규모 학교의 범위 기준에 따르면 적정학교란 학급수가 18학급 이상~ 36학급 이하인 학교를 의미하며 17학급 이하의 학교는 소규모학교, 37학급 이상의 학교는 과대 학교로 분류한다. 소규모학교의 경우 시설투자가 안 돼 시설 노후화의 문제가 발생하며 교과전담교사 배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양질의 수업에 제한이 생긴다. 과대 학교 또한 학생 1인당 할당되는 교지 면적이 감소하며 교내 시설의 원활한 이용에 한계가 생기는 문제점이 따른다. 적정학교 학급수를 기준으로 학교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Table 5> Appropriate school distribution

Number of class	City	Percentage	Gu	Percentage	Eup, Myeon, speical area	Percentage	Gunsan	Percentage
0~17	541	28.41%	351	20.53%	2263	84.41%	43	74.14%
18~36	1013	53.20%	971	56.78%	305	11.38%	13	22.41%
37~	351	18.43%	388	22.69%	113	4.21%	2	3.45%

위의 자료들을 바탕으로 군산시 지역의 데이터 숫자를 비교해보면 군산은 시 지역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당 학급 수가 읍·면·특수지역의 수와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적정 학교 분포 또한 소규모학교의 분포가 74.14%를 차지함으로써 읍·면·특수지역에 비슷한 모습을 보인다. 다음은 적정학교 기준에 따라 나눈 학교 중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가 몇 학교가 있는지를 조사한 자료이다.

<Table 6> Percentage of music rooms and music teachers in Gunsan by appropriate school standards

	Appropriate school standards	Number of school	Presence	None	Percentage of presence	Percentage of none
Music room	0-17	43	13	30	30.23%	69.77%
	18-36	13	8	5	61.54%	38.46%
	37-	2	0	2	0.00%	100.00%
Music teacher	0-17	43	4	39	9.30%	90.70%
	18-36	13	6	7	46.15%	53.85%
	37-	2	1	1	50.00%	50.00%

음악실 비율을 살펴보면 소규모학교에 해당하는 0-17개의 학급을 가지고 있는 43개 학교 중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13개로 음악실이 있는 학교의 비율은 30.23%이며, 적정규모 학교인 18-36개의 학급에 해당하는 13개 학교 중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8개로 음악실 있는 학교의 비율은 61.54%이다. 과대 학교에 해당하는 37개 이상의 학급에 해당하는 2개 학교 주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0개로 0%의 비율이 나타난다.

다음으로 음악전담교사 비율을 살펴보면 0-17학급 구간의 학교 43개 중 음악전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4개로 9.30%, 18-36학급 구간의 학교 13개 중 음악전담교사가 있는 학교는 6개로 46.15%, 37개 이상의 학급 구간 2개의 학교 중 1개의 학교가 음악전담교사가 있어 50%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음악실은 적정규모 학교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음악 전담교사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은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는 적정학교 비율이 높은 지역에 비교해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등 환경적 요소가 비교적 미흡하게 갖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군산시처럼 소규모학교 분포를 보이는 지역에 음악실 구축을 위한 설비 투자가 필요하며 교과전담 배치 가능 수를 늘리거나 음악전담교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함을 통해 음악전담교사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2. 면담 결과

1) 음악환경과 교수법

(1) 음악실과 교수법

5명의 연구대상 중 4명이 음악실의 유무가 교수법에 영향을 준다고 대답하였으며 음악실에 따른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를 크게 수업내용 구성 및 자료 활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음악실에 따라 수업내용의 구성이 달라지는데 특히 학생 실기 위주의 수업 및 교수 영역에서 차이가 있었다. 5명의 연구대상 중 5명이 모두 음악실의 유무가 실기, 실습 위주의 수업과 많은 관련이 있다고 대답하였다.

교실에서 할 것과 음악실에서 할 것이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교실에서는 설명과 기본 익히기 위주의 수업을 하고 음악실에 가서는 실제 자기들이 해보고 하는 실기 실습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지죠. - E 교사 -

즉, 수업하는 공간에 따라 실기 위주의 활동적 수업구성인지 혹은 이론 위주의 정적 활동인지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다. 교실에서 수업하는 경우엔 실제 악기 사용의 비중이 줄고 정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만, 음악실에서 수업 하는 경우엔 실용 위주 수업의 빈도가 늘어났다.

일반 교실에서 기악 연주를 한다면 어디서 악기를 들고 와서 준비하기 힘들니까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책상을 두드리는 거로 대체 하기도하고. 하지만 음악실이 있다면 좀 더 연주나 이런 걸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D 교사 -

특히 이러한 차이가 생기는 배경으로 소음 문제를 5명 모두 언급하였다. 교사들이 음악수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가 크다고 인지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소음으로 인해 음악수업 구성이 달라진다고 대답하였다.

옆 반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러면 노래를 틀어주거나 학생들이 노래를 부를 때에도 크게 할 수도 없고 악기 연주나 특히 리듬 치기를 할 때 발이라도 구르려면 옆 반에 방해가 될 것 같기도 해서 소극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 A 교사 -

일반적으로 학교의 교실은 옆 반과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교실이 붙어 있는 구조이며 방음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특성상 다른 교실의 학습에 피해를 줄 수 있어서 교실에서는 큰 소리가 나는 활동을 지양할 수밖에 없다. 반면 보통 다른 교실과 떨어진 곳에 있으며 방음 시설이 설치된 음악실에서는 악기 연주 및 가창으로 인한 소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음악실이 실기 위주의 수업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음악실의 활용 여부에 따라 교수 영역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5명 중 3명의 교사가 교실에서 수업할 경우 감상영역을 주로 수업하였다고 대답하였다.

교실에서의 창작 수업은 재미없고 지루하고 어려웠어요. 음악실이 있을 때는 학생들이 창작 수업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창작을 하고 아 이 음이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더 음악을 몸으로 느낀다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가창, 기악도 음악실이 있는 경우 더 활발하고 빈번하게 수업을 할 수 있었고 교실에서 수업하면 가창은 그래도 할 수 있지만, 기악, 창작은 어렵고 감상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져요. - B 교사 -

일반 교실에서는 가창이나 기악 영역의 경우 간단한 수준에 한해서는 수업이 이루어지나 주로 감상영역의 수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큰 소리가 발생하거나 동적인 활동을 피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음이 덜 발생하고 정적인 감상영역의 수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B 교사와 E 교사는 창작영역 수업의 경우 직접 악기 소리를 들어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교실에서는 악기 사용이 자유롭지 않아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수업하기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대답하였다. 즉, 수업 공간에 따라 영역별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음악실은 소리를 통해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하는 예술인 만큼 실용 중심의 교육이 중요하다. 따라서 음악실 여부는 음악 실기 수업 및 각 영역의 균형 있는 지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2015 음악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악기를 구비하여 활용할 것을 권한다. 음악실은 여부는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다양한 자료 활용과도 관련이 있다. 음악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악기를 수업에 활용할 수 있지만, 음악실이 없는 경우에는 한정된 악기만을 다룬다.

제일 애들이 손쉽게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리코더, 오카리나, 소고 정도 간단한 악기? 멜로디언도 거의 담임 선생님들은 안 쓰시는 것 같아요. - B 교사 -

5명 중 4명이 교실에서 수업 시 리코더, 단소 등 가볍고 학생들이 준비하기 쉬운 악기 위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대답하였다. 이 배경으로는 악기관리 측면과 수업 준비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악기관리 측면을 보면 교사들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현재 있는 학교도 그러고 피아노 건반이나 자제도 부족하고, 악기 같은 것도 창고에 모아 놓는데 악기도 파손되어있는 게 허다하고 제대로 안 되어있는 게 많아요. 많이 녹슬고. 그래서 변변한 악기 같은 것은 거의 못하고... - B 교사 -

5명 중 5명 모두 근무했던 악기의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았던 적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악기가 갖춰져 있긴 하지만 보관 장소조차 일반 교사들이 알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따로 악기를 관리하는 장소가 없을뿐더러 악기를 관리하는 인력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양한 악기가 있어도 관리 상태의 문제로 인해 활용할 수 없으며 결국 상대적으로싼 가격에 준비할 수 있는 악기들 위주의 수업이 이루어진다.

수업준비 측면을 살펴보면 C 교사는 음악실이 없었던 경우 각 교실에 번갈아 가며 들어가 수업을 했는데 부피가 큰 악기의 이동이 어려워 다양한 악기 사용에 제한이 있었다고 말했다. 학교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초등학교의 쉬는 시간은 10분이다. 주어진 시간 안에 수업에 필요한 모든 악기 준비를 완벽하게 하는 것은 다소 힘든 경우가 있다.

결과적으로 음악교육에 있어서 물리적 환경의 정비는 다양한 자료를 활용한 수업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한편 음악실 유무가 교수법에 영향을 주는지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답변을 하였다.

교수법의 차이라... 그런 것을 제대로 느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현장에 음악실이 잘 배치되어있지 않을 것 같아요. - C 교사 -

음악실이 비치된 학교가 많지 않고 음악실이 있는 학교도 일반 교실을 음악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학교 현장의 음악 환경은 예상보다 더 열악함을 알 수 있다.

(2) 음악 전담교사와 교수법

5명의 연구대상 모두 음악 전담교사의 유무는 교수법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있다고 대답하였다. 여러 측면에서 음악 전담교사는 교수법에 차이를 가져오게 하나 교사의

시범 및 다양한 수업 방식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 방법에서는 실음을 통해 음악 요소와 개념을 구별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음악은 ‘음’을 재료로 하여 창조된 예술적 형성의 결과물이다(Min et al., 2010: 82). 따라서 교사의 범창·범주는 음악수업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5명 중 1명의 교사만 할 수 있는 한 모두 보여주었다고 대답하였다.

시범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교사마다 다양하였으며 부끄러워서, 자신감이 없어서, 소리와 동작이 작아 학생들에게 잘 들리지 않아서 등의 이유를 뽑았다. 특히 3명의 교사가 음악수업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다고 대답하였는데 이 부분에 관련한 교사들의 회고는 아래와 같다.

대학 시절에 가창을 배우긴 하였지만, 깊이 배운 적이 없어서 그런지 가창에 대한 자신감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직접 범창 하기보다는 매체를 활용해요. 학창시절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않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치기 쉽지 않아요.

- A 교사 -

음악을 가르치는 방법을 학창시절 충분히 배우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시범을 보일 만큼의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음악 실기 능력은 단기간에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니며 꾸준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로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대학 시기의 음악 실기 관련 학습 경험의 부족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습 결손으로 이어진다. 또한, 교사들의 교과목을 대하는 태도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D 교사는 교사의 자신감 있는 태도는 학생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학생의 음악을 수용하는 태도가 원활해졌음을 말했다.

어떻게 하는지 참관하면 장구를 치며 아이들 목소리보다 더 큰 목소리로 선생님이 전래동요를 부른다거나 선생님이 자신감 있게 부르는 모습이 부끄러워하는 아이들까지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칠 때는 그렇게 크게 부르지도 않고 신이 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 시간 내내 노래만 해도 신이나 하고 잘 부르는 걸 느꼈어요. - D 교사 -

교사의 능력이 부족해도 맡은 직책에 따라 시범 보이는 것이 달라진다는 견해도 있었다. B 교사와 C 교사는 음악전담일 때와 담임 교사일 때 시범의 횟수와 능숙도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전담교사라는 자리의 책임감으로 인해 시범 준비를 더 하게 되며 전담교사의 경우 한 차시의 수업을 여러 반에서 하므로 담임 교사일 때 보다 능숙한

시범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에게 충분한 실기 능력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실음 중심 음악교육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음악의 미적 경험, 음악을 통한 창의성 계발,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음악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5명 중 3명의 교사는 음악 전담교사가 있으면 수업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수업 진행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D 교사의 면담 내용이다.

다양한 수업 방식을 활용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춤을 추게도 하고, 노래도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교사가 음악에 전문성이 좀 더 있다면 자신 있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 D 교사 -

같은 내용을 수업하더라도 전담교사가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 활동이 다양해지고 동적인 수업 방식이 사용된다. 이렇게 다양한 음악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배경으로는 충분한 교과연구 시간에 있다.

초등학교에서 음악 교과목은 3학년부터 편성이 되어있다. 교육과정 편제상 3~4학년 군의 경우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체육, 음악, 미술, 영어의 9개 교과, 5~6학년 군의 경우는 3~4학년 군 9개 교과에 실과가 추가되어 10개의 교과를 학습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보통 2~3과목을 전담교사가 맡아서 진행하면 담임 교사는 6~8개 정도의 과목을 가르친다. 학급 수가 작은 학교는 전담교사 수가 적어 더 많은 과목을 담임 교사가 담당하는 때도 있다.

담임 교사는 여러 과목을 하다 보니 주지 과목에 치우치게 되고 예체능은 소홀할 때가 있어요. 이걸 확실해요. 저도 담임을 할 때 보면 애들이 수학시험을 못 보면 한 시간 재구성해서 수학을 더 하고 하지만 음악이나 체육은 빨리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죠. - D 교사 -

보통 교사 1인당 일주일에 최소 2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는데 6~8과목 정도의 수업을 매 차시 준비하다 보면 한 과목을 집중하여 수업연구를 할 때 보다 질적인 측면에서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교사의 전문성에 차이를 가져온다. C 교사는 담임으로 음악 교과를 가르칠 때 보다 음악 전담교사로 수업을 했을 때 학생들이 학습 목표에 훨씬 잘 도달하며 학생 수준의 맞춘 수준별 지도도 가능했다고 회고했다. 이를 통해 음악 전담교사는 교수·학습 측면에 있어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음악 환경에 따른 학생 반응

양종모(Yang, 2002)는 질적인 음악수업은 학생의 높은 참여도, 배운 내용의 활용, 활발한 음악 활동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음악 환경이 유의미한 음악 수업과 관련이 있는지 살피기 위하여 교사들을 대상으로 음악 환경에 따른 학생들의 반응을 질문하였으며 크게 수업 참여도 와 수업 내 학생 음악 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내실 있는 음악수업의 특징 중 하나는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다(Yang, 2002). 학생 참여의 적극성을 끌어내는 요인에는 물리적 환경 및 교사 환경 즉,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가 있다.

교과 교실은 교과목 특성에 맞는 수업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해당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제도이다(Hong, 2013). 음악실에 따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 변화에 관한 교사들의 회고는 다음과 같다.

음악실에 가면 확실히 좀 더 평소와 다른 환경이라 그런지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반 학생들을 데리고 리코더를 하러 몇 번 갔는데 리코더를 하러 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았어요. - E 교사 -

5명 중 4명의 교사가 일반 교실과 교과 교실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의 참여도 및 집중도가 달라짐을 느꼈다. B 교사는 음악실에서 수업 하면 학생들이 교실에서 수업할 때보다 훨씬 즐거워해서 참여도가 높아진다고 이야기하였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 음악실은 음악수업을 위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으며 잘 조성된 환경은 면학 분위기에 도 영향을 준다. 다음은 면학 분위기에 관한 D 교사의 면담 내용이다.

예체능 과목은 편안한 분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악실이 있다면 좀 더 편안한 분위기가 될 것 같아요. 노래를 부를 때 일반 책상에 반듯이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 무대가 있는 피아노가 있고 선생님이 반주를 해주는 곳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 D 교사 -

수업 참여도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요인은 교사 환경이 있다. 음악 교사는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에 대하여 전문 지식과 실기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경우 학생의 참여도가 높아졌다는 교사들의 의견이 있었다.

전공자들이 음악수업을 한다면 확실히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도 전문성의 차이를 느끼니까, 집중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 E 교사 -

학생들도 교사의 전문성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실기 능력을 갖춘 교사가 수업할 경우 높은 집중력을 보인다. 전담교사의 역량에 따라 수업 참여도가 달라질 것이지만 교사의 역량을 떠나 교사가 시범을 직접 보이는지가 수업 참여도를 높인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실기 능력이 뛰어난 교사가 수업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사가 음악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가지고 학생을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성격에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라는 내용이 고지되어있다. 학교 교육이 지식 전달 위주의 수업이 아닌 학습자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김영미(Kim, 2019)에 의하면 학습자 활동 위주의 수업은 학생의 내재적 동기 향상 및 성취감을 고취한다. 이는 내실 있는 음악수업을 위한 요소 중 하나가 학생 활동이라는 것을 뒷받침한다. 5명의 연구대상 중 5명 모두 음악 환경이 갖춰졌을 때 수업 내 학생들의 음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대답하였다.

음악실이 있다면 가창이나 악기 연주 같은 부분은 확실히 더 활발히 이루어졌던 것 같은 데 없어도, 아예 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나... 있는 편이 좀 더 학생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 E 교사 -

음악실이 있는 것이 없을 때 보다 학생 활동이 더 활발히 나타난다. 학생 활동에 변화가 생기는 이유로 교사들 모두 소음 문제를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는 의견과 더불어 음악실에서는 교실에서보다 다양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간접 경험의 기회가 발생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음악실에서는 음악 활동이 더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죠. 악기도 그때그때 보여줄 수도 있고, 영상보다 실물로 볼 수 있어서 이해도 빠르고 기억이 오래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배우지 않아도 그런 악기가 있으면 학생들이 왔다 갔다 하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간접 체험도 이루어질 수 있을 거예요. - A 교사 -

학생 활동에 있어 교사의 역할은 빼놓을 수 없는 요소이다. E 교사는 음악실과 더불어 학생 활동을 활발히 이루어지게 하는데 음악 전담교사의 역할을 강조했다. 담임 교사의 경우 주지 교과나 생활지도에 신경을 쓰다 보면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전담 교사가 있으면 음악적 활동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 현장의 현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교사도 있었다. D 교사는 초등학교에 음악 환경이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학생들이 음악을 학습하고

누릴 기회를 빼앗는다고 하였다.

많은 학교는 음악 환경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 많은 학생이 음악적으로 실력을 쌓을 또 음악을 즐길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D 교사 -

결론적으로 음악 환경은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진행에 도움을 주며 유의미한 음악수업에 기여한다. 따라서 초등학교 현장의 음악 환경 구축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음악 교과 운영실태

(1) 음악실과 교과 운영실태

음악실의 여부는 음악 교과를 운영할 때에 있어서 음악수업 내용 충실도와 수업 시수 면에서 차이를 발생시킨다. 다시 말하면 음악실 유무에 따라 음악수업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수업 시수가 충실히 지켜지는지, 혹은 수업 손실이 생기는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C 교사는 교과 교실에서 수업했을 때와 각 반 교실을 돌아다니며 음악수업을 하였던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미리 수업을 준비해 놓으니까, 또 옮겨 다니지 않고 그 교실에서만 하니까 40분 동안 수업의 처음 가운데 끝을 지켜서 알차게 수업 구성을 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6학년을 가르칠 때는 음악전담임에도 교실에 가서 수업해야 하니까 그 반에 가서 미리 준비해야 했고 수업이 시작되고서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죠. 그리고 내 교실이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같은 기자재 활용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40분 내내 수업이 완벽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적이 있었어요. - C 교사 -

현재 초등학교 1교시 수업은 40분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사가 수업을 준비하기에 쉬운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음악수업 손실 여부가 발생하고 이는 음악수업내용의 충실도에도 차이를 생기게 한다. 다시 말해 음악실이 있는 경우 음악수업 손실이 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음악실 사용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5명 중 4명의 교사가 음악실이 잘 활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활용도가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크게 노후화,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음악실 노후화에 대한 B 교사의 면담 내용이다.

음악실이 있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음악실의 노후화예요. 특히 매년 예산이 주어지는 과학이나 체육과 달리 음악실 사업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의무인지도 잘 모르겠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몇 년 주기로 의무적으로 바뀌 줬었는데 음악실은 없는 학교도 있고 음악실이 있다 해도 악기가 있다 해도 제대로 소리가 안 나는 게 허다하고 학교에 관리하는 인원도 없고 신경을 쓰지 않아서 수업하기에도 부실했어요. -B 교사 -

음악실 관련 예산이 없거나 매우 낮은 비율로 책정되어 있어 악기 구비 및 수리가 어렵다. 또한, 현장의 악기관리가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음악실을 관리할 인력이 없어서 음악실 시설 및 기자재 관리가 되지 않아 사용률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예산 편성 상의 문제도 보인다.

과학 같은 건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니까 몇 퍼센트 기준이 되는 수량이 있어요. 꼭 학교에 무조건 갖춰야 하는 양이 있어서 해마다 구비해 놓고 무조건 재료 비용으로 학교 예산의 얼마를 편성해야 해요. 근데 음악은 예산이 없기도 하고 의무편성이 없기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아요. -D 교사 -

학교회계 예산 편성 및 운영지침(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Budget Division, 2018)에 따르면 과학 교과의 경우 학교 예산 편성 시 예산의 3%를 실험교구 및 실습재료 구입비로 편성하도록 권장한다. 또한, 체육교과도 체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학교운영비의 3% 이상을 예산에 편성할 것은 권장한다(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Personal Health Division, 2020). 하지만 음악 교과는 예산 의무편성 기준이 없고 악기 및 기자재 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지도 않는다. D 교사의 회고에 따르면 물품 대장을 등록하고 보유율을 보고한 적은 있으나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 갖춰야 할 악기의 수나 종류가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다음은 교육과정 운영상 문제에 관한 교사들의 면담 내용이다.

음악실이 전교에 1개뿐이라서 다른 반과 겹칠까 봐 사용을 잘 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저희 반에 음악실 사용 시간이 배정이 안 되어서요. - E 교사 -

초등의 경우 주당 수업시수 2시간 일 때 24학급, 30학급 시설기준 필요 음악 교실 수는 1개 36학급, 42학급 수업시수에 필요한 음악 교실의 수는 2개이다(Cho et al., 2011).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울 때 특별실 이용시간 계획 또한 세운다. 하지만 음악실이 없는 학교도 많으며 학급수가 많은 학교도 음악실이 2개 이상 갖춰져 있는

학교는 드물다. 따라서 음악수업 시수만큼의 원활한 음악실 이용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한편 음악실 운영에 있어 현행 제도적 문제의 불편함을 토로한 교사도 있었다.

초등은 음악실을 잘 만들어놔야 할 때 어려움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악을 잘하는 선생님이 왔어요.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음악실도 만들어놔요. 근데 그 선생님이 떠나면 관리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망가지는 것들이 있어요. - E 교사 -

초등교사들은 5년마다 근무지를 이동해야 한다. 음악에 관심이 많은 교사나 관리자가 특정 학교에 음악시설을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해당 교사가 학교를 이동하면 다음 후임자가 음악실을 관리할지 장담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유지가 힘든 경우가 많다. 시설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나 지원이 학교 차원뿐 아니라 지역 차원에서도 필요함을 시사한다.

음악실 활용도가 낮은 가장 근본적 문제는 음악 교과에 대한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이는 B 교사와의 면담 내용에서도 잘 드러난다.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다른 예체능 과목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음악실이 있어도 사용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 B 교사 -

문경숙(Moon, 2009)은 미흡한 음악교육 환경은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음악 교과에 대한 인식 개선은 교육적인 음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다.

(2) 음악 전담교사와 교과 운영실태

교사는 수업을 직접 운영하는 존재로서 교사의 역량에 따라 교과 운영이 달라진다. 이 절에서는 음악 전담교사에 따른 운영실태를 수업시수, 내용 충실도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음악 전담교사의 여부는 수업시수와 큰 관련이 있다고 4명의 교사가 대답하였다. 음악 전담교사가 있는 경우 수업 시수는 없는 경우와 비교해 잘 지켜진다는 것이다.

담임으로서 음악을 가르칠 때는 사실 그러면 안 되지만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로 생각해요. 제재 곡 하나당 1시간에 끝낼 수 있을 정도. 다른 주지 과목 같은 걸 공부하고 애들이 너무 지치는 시간이다. 이럴 때 끼워서 빨리 진도를

나간다면, 교육과정에 짜여진 수업 차시에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B 교사 -

담임 교사가 음악수업을 운영할 경우 교육과정을 통합하거나 재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적절한 재구성은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필요하다. 하지만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재구성이라기보다는 교육 시수의 부족으로 재구성이 이루어진다. 이는 학교 내외의 행사로 인한 수업 결손으로 지속적인 학생 교육에 불편함을 느끼는 교사들이 많다는 양종모(Yang, 2002)의 연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음악 교과와 중요도를 타 교과에 비해 낮게 측정함으로 재구성이 이루어지는 예도 있다. 다음은 C 교사의 면담 내용이다.

보통음악은 주지 교과가 많거나 하는 날 5교시 같은데 넣는단 말이죠. 근데 5교시면 알림장 쓰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렇다 보면 온전한 수업을 하기가 힘들죠. - C 교사 -

생활지도 및 하교 지도를 하기 위해 음악수업을 40분 내내 진행하지 않고 30분 정도로 줄여서 운영한다. 학급 교육과정 운영상의 불편함 때문에 결손이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음악 교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서이다. 수업 결손은 음악 교과 수업내용의 충실도에 차이를 가져온다. 5명의 연구 대상자 모두 음악전담 교사가 있는 경우 음악 수업내용의 충실도가 상승한다고 답하였다. 다음은 이에 관한 D 교사의 회고 내용이다.

음악 전담교사가 있는 게 충실하죠. 저도 그랬지만 예를 들어 일반 교사가 감상 수업할 때는 그냥 듣고, ‘느낌을 그림으로 그려라’ 이렇게 뻔한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음악 전담교사가 있다면 뻔하게만 수업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담교사가 있으면 수업이 훨씬 더 충실해지고, 다양해지고 학생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훨씬 더 발견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 D 교사 -

다시 말하면 담임 교사가 수업하는 경우에 수업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수업이 적게 운영된다. 교사들은 연구 시간의 부족, 교과 이해 부족, 음악수업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짜여진 교육과정의 100%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교과서 활동이 힘들어요. 주어져 있는 활동들이 담임 교사로서 가르칠 때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힘들어서 음악수업 준비가 어려운 점도 있고요. 다른 수업보다 음악이 주지 과목 진도를 맞추다 보면

소홀하게 되고, 짧게 줄여서 수업을 하게 되죠. - B 교사 -

전문성을 가진 교사의 부재는 교육 비평준화를 가져온다. 2명의 연구대상은 음악 전담교사가 없는 경우의 담임 교사의 역량에 따른 수업의 질에 차이가 생긴다 말하였다. 특히 고학년의 경우 심화 된 음악적 지식을 다루기 때문에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음악전담교사가 필요하다.

담임이 취약한 부분, 수업준비가 미진한 부분 혹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가르치지 않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각 반마다 음악수업의 질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음악전담이 있으면 골고루 가르치기 때문에 수업의 질적인 차원에서 음악전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C 교사 -

담임 교사의 음악적 능력 및 흥미도에 따라 수업내용에 차이가 생긴다. 그러다 보면 한 학년에 여러 반이 있는 경우 일부 반만 교육 과정상 정해져 있는 교육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해가 지나서 학년이 바뀌고 학급이 바뀌면서 학생들이 섞이게 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며 학생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 능력의 격차는 더 커지게 된다. 또 다른 의견으로 E 교사는 음악 교과 운영상의 미흡함으로 음악수업은 평가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으며 학생들이 음악의 즐거움을 느낄 기회가 줄어드는 것이 아쉽다고 하였다. 생활 속에서 음악을 향유 할 수 있는 인간으로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IV. 결론 및 제언

음악실은 음악교육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은 질적인 초등 음악교육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군산시의 음악실 및 음악 전담교사 실태를 조사해보고 현장 교사들의 면담을 통해서 보다 나은 음악 환경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군산시 초등학교 음악실 및 음악전담교사 현황이다.

첫째, 군산시 58개교 중 음악실은 36.207%, 음악전담교사는 18.966%가 보유하고 있었다.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가 모두 있는 학교는 전체의 10.34%에 불과하였다. 둘째, 군산시 소규모학교의 분포가 74.14%로 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읍·면·특수 지역과 비슷한 분포 모습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음악실은 적정규모 학교에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음악 전담교사는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은 비율로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음악 환경에 따른 교수법의 차이를 심층적으로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음악실의 여부에 따라 수업내용 구성 및 자료 활용에 있어 교수학습 방법의 변화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수업내용 구성 측면에서 음악실이 존재할 경우 실기, 실습 위주의 동적 수업이 원활하게 일어났으며 자료 활용 측면에서는 음악실이 있는 경우 다양한 악기를 수업에 활용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음악전담 교사의 유무는 시범과 다양한 수업 방식 측면에서 교수법의 차이를 가져왔다. 음악전담일 때 능숙한 시범을 더 많이 보일 수 있었으며 담임 교사보다 교과연구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할 수 있어 다양한 활동을 활용한 수업을 할 수 있었다.

음악 환경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은 달리 나타났으며 이는 유의미한 음악수업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는 척도가 된다. 음악환경과 학생 반응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음악실에서 수업 하는 경우 일반 교실에서 수업할 때 보다 학생들의 집중도 및 참여도가 상승하였다. 이는 음악실 공간이 주는 면학 분위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전담교사가 있는 경우에도 학생들의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사의 전문가로서의 면모가 학생의 집중도 및 참여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둘째, 음악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수업 내 학생들의 음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음악실과 음악 전담교사 모두 학생들의 음악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교육과정 운영 계획과 달리 현장의 실제 운영은 계획과 차이가 나게 된다. 음악 환경에 따른 음악 교과 운영실태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실 유무는 교과 운영실태와 관련이 있으며 음악수업 내용 충실도와 수업 시수 면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음악실이 없는 경우 수업 손실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음악수업내용의 충실도에도 차이를 생기게 한다.

둘째, 음악전담교사가 있는 경우 수업 시수가 잘 지켜졌으며 수업내용 또한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전담이 없는 경우의 내용 충실도가 떨어지는 이유로 교사들은 연구 시간의 부족, 교과 이해 부족, 음악수업에 대한 부담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음악 환경에 따른 교수법, 학생 반응, 교과 운영은 따로 분절되어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것들이었다. 교육환경의 조성은 음악교육에 선행되어야 할 필수적 요소이며 초등 음악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하여 음악교

육 환경의 재정비를 위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에 음악실 설치 및 악기·기자재를 갖춰 학생들에게 양질의 음악 환경에서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재학생 수에 따라 일반 교실을 뺏말만 음악 실로 바꿔 만들고 없애는 곳이 아닌 적절한 방음 시설 및 악기를 갖춘 음악실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실 구축을 위한 예산 마련이 필요하며 필수 악기 목록 등을 만들어 학교에 갖추게 해야 한다. 과학 교과나 체육 교과의 경우 학교 예산 편성 시 예산의 3%를 실험교구 및 실습재료 구입비로 편성하도록 권장한다. 하지만 음악은 예산의 몇 프로를 배정해야 한다든지 하는 규정이 없어 교내 예산 편성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때도 있다. 따라서 음악과 예산 확충을 통해 음악 환경 조성의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둘째, 전담교사 배정 시 음악 교과 전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배포한 2020 학교체육 주요업무 계획에서는 체육 교과 내실화를 위한 방안 중 한 가지로 교과 전담제 운영 시 체육전담교사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체육 교과는 2013년부터 전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체육전담교사의 확대 배치는 체육교육에 긍정적 변화를 일으켜 현장 교사들에게 환영받고 있다(Seo et al., 2014). 체육교과의 사례를 참고하여 음악교육 현장에도 음악 교과의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중 하나로써 교과 전담교사를 필수적으로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초등교사의 음악 교과 전문성 향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연수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현장 교사들에게 제공되는 음악 연수는 단발적이며 직전 교육과의 중복으로 내용적 심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Park & Yim, 2006). 초등교사가 학생들에게 음악 교과를 충분히 지도할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속적이며 심화 된 연수 기회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수의 확대는 현장 교사들의 음악 능력향상을 일으켜 초등학교 음악교육의 전반적인 질적 개선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넷째, 음악교육의 위상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앞선 제언들은 음악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서는 이루어지기 힘든 일이다. 단기적 관점이 아닌 장기적 관점에서 음악교육의 내실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며 일반 교사들뿐만 아닌 관리자와 행정가들의 인식 개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군산시의 사례에 한정된 것으로 군산시와 비슷한 작은 지역과 달리 중소 도시나 대도시는 다른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따라서 군산시 외 다른 지역에서도 지역별로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초등학교 음악 환경의 실태를 더욱 자세히 파악하고 질적인 음악 환경을 조성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Reference

- Ahn, D. H. (2009). The influence of family process and school climate on school attitude of upper elementary student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2(1), 401-420.
- Cash, C., & Twiford, T. (2009). Improving student achievement and school facilities in a time of limited fun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Educational Leadership Preparation*, 4(2), 1-9.
- Chi, E. L., Yang, M. H., & Cheong, Y. S. (2011). Effects of teachers' activities for instruction and evaluation on students'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4(4), 165-184.
- Cho, G. B. (2007). *Survey of issues and facts in musical environment for youth and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Master thesis, Mokpo University.
- Cho, J. I., Ryu, H. S., Lee, H. R., Choi, B. G., Park, S. C., Choi, H. J., Min, B. J., & Lee, B. H. (2011). *Study on revision of school facility standards*. Ministry of Education.
- Choi, E. S., & Kim, I. Y. (2012). A study on the space plan of music classrooms.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1), 1411-165.
- Choi, H. J. (2016). A study on the nature of spaces in elementary schools that promote creativity. *Journal of Korean Education*, 43(4), 33-62.
- Earthman, G. I. (1995). *A statewide study of student achievement and behavior and school building condition*. Annual Meeting of the Council of Education Facility Planners. Dallas, TX.
- Essy, D. (2002). *Qualitative analysis: Practice and innovation*. London: Routledge.
- Hong, H. J., Lee, G. S., Lee, S. J., Kim, H. C., Kim, D. S., Min, B. J., & Im, Y. N. (2013). *Study on the effect of improving classroom instruction through the operation of the subject classroom system (2013-31)*. Seoul: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Budget Division. (2018). *School accounting budgeting guidelines(2017-617)*. Jeonju: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Personal Health Division. (2020). *School sports main business plan(2020-006)*. Jeonju: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 Jung, D. E. (2011). Analysi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stressors about music instruc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0(3), 25-58.

- Kim, N., Park, M., Lee, B., & Soh, W. S. (2018). The role of teacher characteristics and feedback in developing elementary students' affective and cognitive achievement. *The Journal of Curriculum and Evaluation*, 21(2), 129-151.
- Kim, Y. M. (2019). Study on learner activity centered music class - Composition of action learn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3), 49-72.
- Korean Educational Statistic Service. (2019). *Education statistics*. Retrieved 4 Jun 2020, from https://kess.kedi.re.kr/stats/school?menuCd=0101&cd=4109&survSeq=2019&itemCode=01&menuId=m_010104&uppCd1=010104&uppCd2=010104&flag=B
- Kwon, S., & Kim, H. J. (2017). A study of the operation of elementary school music instructors in charge.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6(4), 1-19.
- Lee, H. J., Mang, J. H., Lee, J. O., Han, Y. S., Kim, S. J., Lee, S. M., Song, B. J., Lee, S. M., Yoon, C. G., Ha, I. C., Lee, Y. H., Park, S. C., Kim, D. H., Son, J. G., Go, B. S., & Kim, C. N. (2013). *Academic research on school facility planning, design guidelines and facility standards development(2013-38)*. Seoul: Korean Institute of Educational Environment.
- Lee, J. N. (1997). *A study on the music environment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Master thesis, Sungshin University.
- Lim, E. J. (2015). The influences of music teachers on a person's musical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lifelong music learn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4(1), 167-183.
- Min, K. H. (2016). The discussion for the vitalization of school music education. *Research in Music Pedagogy*, 17(1), 1-23.
- Min, K. H., Kim, S. Y., Kim, Y. H., Bang, K. J., Seung, Y. H., Yang, J. M., Lee, Y. K., Rim, M. K., Jang, K. B., Cho, S. I., Ju, D. C., & Hyun, K. S. (2010).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Ministry of Education. (2013).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Presidential Decree No. 24377 partially amended.
- _____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 _____ (2016). *Regulations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chools below high school*. Presidential Decree No. 27327 partially amended.
- Ministry of Education School Policy Division. (2015). *Recommendation criteria for fostering appropriate sized schools and reorganization of branch principals(draft)*.

- Sejong: Ministry of Education.
- Moon, K. S. (2009). An investigation on the status of elementary music education in Republic of Korea and recommendations for further improvement. *Journal of Ewha Music Research Institute*, 13(1), 91-133.
- Park, J. H. (2017). A study on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music teacher training programs - Focused 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0, 35-53.
- Park, M. K., & Yim, M. K. (2006).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for the secondary music teacher's training system. *Journal of Society for Music and Reality*, 31, 175-199.
- Park, S. C. (2018). *A study on educational facilities responding to future educational environment(I) - A plan for reconstructing learner-centered school facilities (RR2018-17)*.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Park, Y. S. (2009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 classroom-type execution model (CR2009-18)*.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_____ (2009a). *A study on the educational effects of school facilities(CR2009-)*. Jincheon: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 Seo, J. Y., Yu, C. W., & Kim, T. C. (2014).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invigorating policy for physical education in school(RRC 2014-8)*. Jincheon: Korean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Seog, M. J. (2016). Music teacher standards review for music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1(2), 23-37.
- Sung, K. H., Park, G. H., & Lim, Y. M. (2002). A study on problems and propositions of departmental system in elementary school. *The Journal of Korea Elementary Education*, 13(1), 315-351.
- Yang, J. M. (2002). *A qualitative case study of good music classes in secondary school(RRC 2002-4-6)*. Jincheon: Korean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 Yu, G., Jung, J. W., Kim, Y. S., & Kim, H. B. (2018). *Understanding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eoul: Pysstory.